

태영건설에게 SBS는 탐욕의 먹잇감이었다

마약 구속 재벌 3세와 윤석민 그리고 SBS의 성역 후니드

윤석민 회장, 마약 구속 SK 3세와 '후니드' 동업
후니드,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SBS의 '성역'
후니드, SBS그룹 전체 일감 싹쓸이 하는 사익추구 통로
윤 회장 자신은 배당-지분 가치 폭등으로 천문학적 수익률
주식 위장 거래 의혹도 강력 제기..검찰 수사 및 공정위 조사 필요

지난 달 초, 경찰 조차 이름이 익숙지 않은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재벌 3세가 뉴스 화면을 뜨겁게 달궜다. SK 창업주 故 최종건 회장의 장손인 최영근. 검찰에 구속된 최씨는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다.

최씨가 윤석민 회장과 함께 SBS 미디어그룹 전체의 각종 용역 하청 일감을 싹쓸이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 '후니드'의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10대 때부터 '후니드'를 통해 매년 수십억의 불로소득을 챙겨왔던 최씨는 결국 마약에까지 손을 뻗치며 재벌가 3세들의 흥측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 SBS와 구성원들을 쥐어짜서 후니드로 뽑아간 수익 일부가 재벌 3세의 마약구매 자금으로 쓰인 셈이다.

그런데 마약사범 최 씨뿐만 아니라 윤석민 회장도 자신이 대주주인 '후니드'에 태영건설과 SBS 미디어그룹 전체의 용역 일감을 싹쓸이로 몰아주며 뒤로는 엄청난 사적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노보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태영건설 일부 임원들의 사례는 윤석민 회장의 물불 안 가리는 사익 추구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밭의 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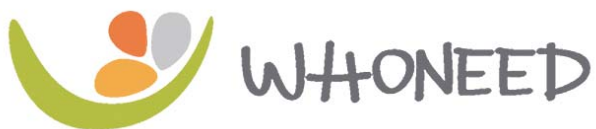


마약혐의로 구속된 SK 3세 최영근씨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두 사람은 급식 및 용역전문 회사 후니드의 대주주로 동업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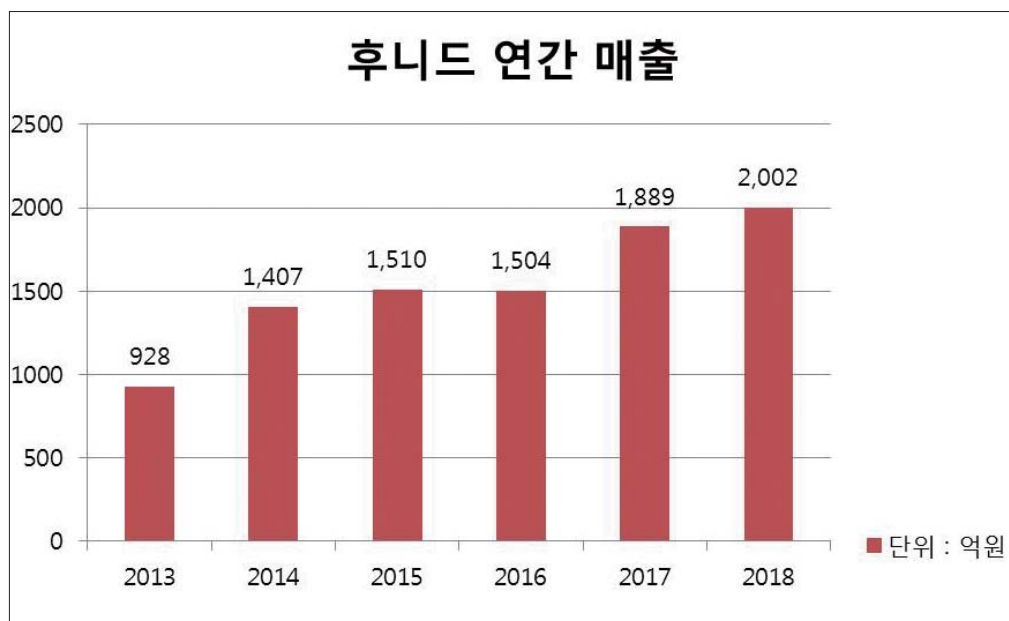
후니드를 해부한다① 특혜 이익 보장

SBS의 '성역' 후니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적자를 봐도
후니드 이윤은 보장



SBS 경영부문 직원들에게는 오래된 금기어가 하나 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하는 단어, '후니드'.

‘후니드’는 SBS와 SBS계열사 등에 시설, 경비, 미화, 운전, 방송제작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회사다. 흔히 ‘을’의 위치에 있을만한 회사이지만 이 회사를 ‘을’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이 회사가 제시한 청구서에 함부로 빨간 줄을 쳐서도 안 되고 SBS가 적자를 보는 해에도 기업 이윤은 꼬박꼬박 보장해줘야 한다. 어느 순간 이 회사는 SBS그룹 전체의 용역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고 급기야 2018년엔 연 매출 2,000억 원을 넘어섰다. 동종업계의 2배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용역업계의 신데렐라 회사가 ‘후니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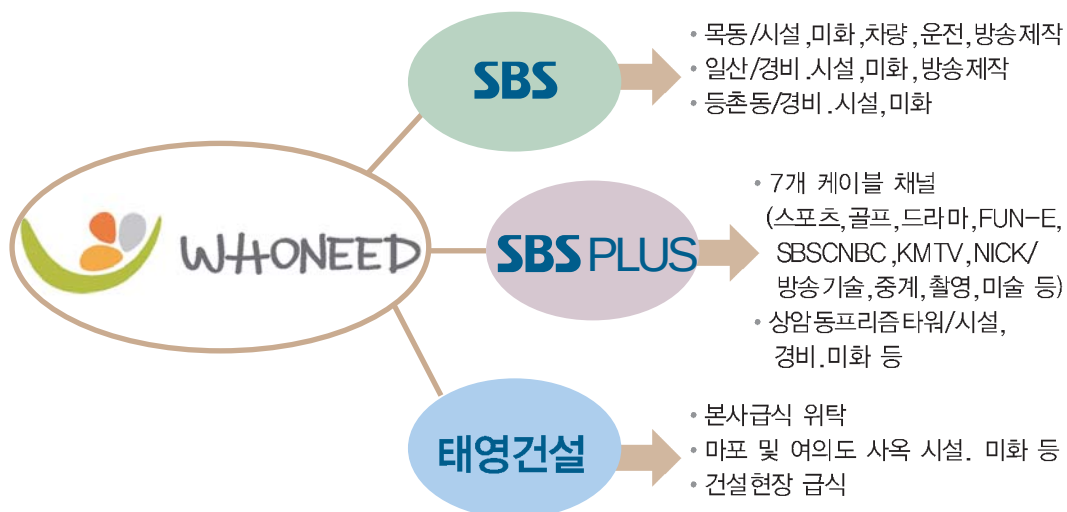


윤석민 회장과 후니드, 얼마나 밀어주고 얼마나 챙겨갔나

SBS 그룹 전 계열사, ‘후니드’와 수의 특혜 계약 지속

타 용역사 대비 2배 이상 이익 보장...SBS 적자에도 후니드 이윤 보장 계약

2018년 현재 SBS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목동 본사의 경비업무와 전화교환 업무 등을 제외하고 시설관리, 경비, 미화, 운전 등의 모든 도급직 인력과 사무보조, 기술보조 등 각 실·본부의 파견 인력 대다수를 ‘후니드’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하고 있다. 인력 규모로는 250여 명이 넘고 금액으로는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거기에 SBS에 용역을 제공하는 타 회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그대로 보장해 주고 있다.



후니드 미디어센터는 사실상 윤석민 개인회사

사무실은 프리즘타워에, 경영은 윤회장 외삼촌 변 모씨 등 태영 출신이 장악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는 식당급식은 기본으로 하고 시설, 미화, 경비 등 도급 인력의 100%를 ‘후니드’와 수의계약으로 거래하고 있다. SBS플러스의 경우에는 7개 채널

널의 방송 제작, 기술, 중계, 영상, 미술, 차량 부문에서의 도급, 파견 인력을 모두 ‘후니드’를 통해 공급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방송S/W, 시스템 설계구축, 선거방송 시스템과 CG까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목동 외에 상암동 프리즘 타워에 입주한 SBS 미디어그룹 계열사들이 보장하는 후니드 매출 규모는 SBS의 거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연간 200억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BS 미디어그룹 계열사 일감을 싹쓸이하는 후니드 미디어제작센터는 아예 사무실도 프리즘타워 안에 두고 있으며, 경영도 태영 측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윤석민 회장의 외삼촌인 변 모씨가 지금도 고문 자리를 맡고 있다. 이곳에서도 당연히 후니드는 특혜적 기업 이윤을 보장받는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2017 후니드-SBS 주요 용역 거래 특혜적 이익 보장 비율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계
후니드-SBS	5%	5%	10%
후니드-SBS PLUS	5%	5%	10%
A사(목동 사옥 경비)	3.3%	1.3%	4.6%
A사(목동 사옥 안내)	3.9%	-1.6%	2.3%
C사(일반 용역 사원)	4.65	0	4.65%
D사(전화교환)	3.07	0.75	3.82%

SBS 경영위기에도 특혜적 이익보장...
타 업체 마진 줄여 후니드 이윤 몰아주기

비대위가 확보한 SBS 내부의 용역계약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여타 용역업체에 대해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더 해 5%에도 못 미치는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반면, 후니드는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각각 5%씩, 즉 타 업체의 최소 2배가 넘는 이익을 보장하는 부당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은 SBS의 경영사정이 나빠지자, 전년도보다 기업이윤을 삭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니드는 SBS가 적자를 보든 말든 5+5의 특혜 계약을 지속적으로 보장받는다. 이를 통해 해마다 수 십 억 원의 현금이 후니드에 대한 특혜로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1~2명의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도급인력 채용까지 후니드가 끌어 담는 등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일감 싹쓸이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SBS 구성원들의 마지막 고혈까지 짜내고, 저임금 외주 노동자들의 피땀까지 우려내 윤석민 회장 개인의 지분가치와 배당을 늘리는데 써먹는 파렴치한 것이 ‘경영행위’라는 이름으로 뽀뽀하게 저질러져 온 것이다.

후니드가 그 동안 목동 SBS센터 직원식당 운영권까지 호시탐탐 노려온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명백한 불법 부당지원, 그러나 윤석민의 ‘성역’은 손댈 수 없었다

경영부문 구성원들에 따르면 후니드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내부에서 오랜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윤석민 회장의 뒤통에 손을 대는 행위는 암묵적 금기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다.

비상식과 불합리, 불법적인 대주주 개인에 대한 부당지원임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불법 경영행위가 SBS를 망치고 심각한 빈혈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 윤석민 회장의 위세에 눌려 이런 해사적 경영행위

는 오랫동안 방치될 수 밖에 없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윤석민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SBS에 손해를 입힌 후니드 특혜 용역 계약 체결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아울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SBS 내에서 부회장 지시사항, 윤석민 회장 관심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 의사결정 구조를 망가뜨린 채 이뤄져 온 경영행위가 사실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SBS 미디어그룹을 동원한 부당지원과 2014년부터 최소 1,000억 원대가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일감 싹쓸이를 통해 후니드에 개인 지분을 보유한 윤석민 회장은 도대체 얼마를 벌어들인 것일까?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감 싹쓸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부터 작년 2018년까지 윤석민 회장이 ‘후니드’에서 받은 배당만 총 28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배당만 놓고 계산했을 때의 수익이다. 뒤에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지분 가치까지 포함하면 배당액이 오히려 작아 보일 정도로 폭발적인 수익을 챙기게 된다.

후니드 영업이익과 배당금 현황(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영업이익	54억	90억	90억	87억	114억	108억	543억
총배당금	20억	29억	50억	34억	40억	35억	208억
주당배당금	50,000	56,415	28,800	35,000	40,000원	35,000	
윤석민 배당금	3.07억	4.4억	7.7억	5.4억	6.15억	1.71억 (지분을 4.9%)	28.43억

후니드 미디어제작센터는 상암동 프리즘타워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 SBS 방송 관련 일감을 싹쓸이 하고 있다.

사진자료 : 후니드 홈페이지



[후니드미디어제작센터] SBS케이블채널 주요종실 방송
송출/운영

경력	무관(신입포함)	급여	회사내규에 따른
학력	대졸(23년제) 이상	근무형태	파견직

후니드
냉난방설비 유지관리원(목동SBS사옥 기계실직원) 모집

후니드를 해부한다② 금수저 알짜 회사의 탄생

마약 구속 SK 3세
최영근의 후니드,
태영 2세 윤석민의
태영매니지먼트와 손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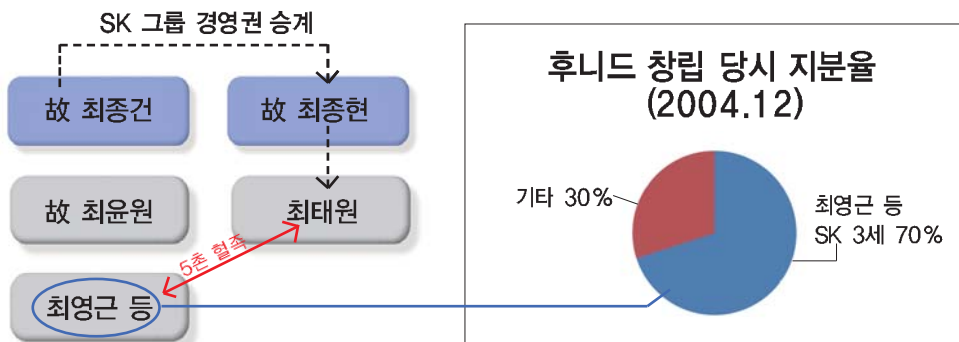
주요사업분야



후니드, SK 3세 혈족 특혜 기업으로 출발

‘원래 ‘후니드’는 2004년 12월에 자본금 10억 원으로 위탁급식 등 인력서비스를 주업으로 설립되었다. 지배주주는 최영근(지분 30%), 최00(지분 20%), 최00(지분 20%). 설립 당시 17살에서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최씨 혈족 대주주들이 7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실체는 ‘후니드’가 SK그룹의 급식을 도맡으면서 곧 드러났다. ‘후니드’의 대주주 최씨 3남매는 모두 SK그룹의 창업자인 최종건의 장남 최윤원의 자식들이었다.

SK 그룹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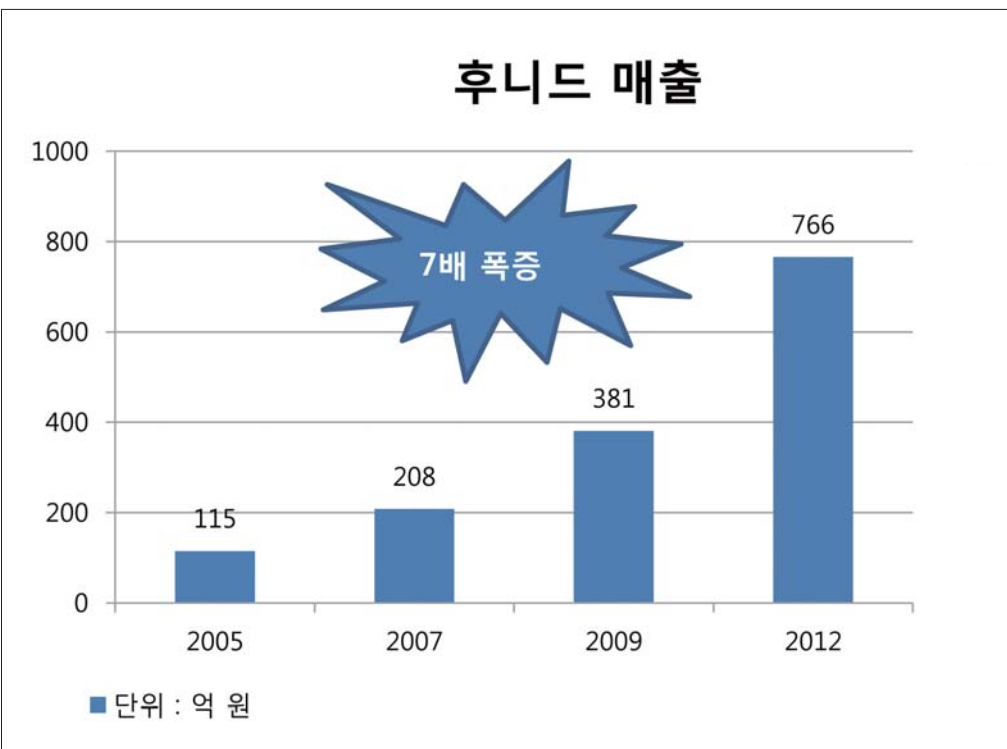
SK그룹 경영권이 최씨 3남매의 5촌 당숙인 최태원 회장에게 넘어가면서 장손가인 최영근씨 등은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되었다. 배제된 조카들을 챙기겠다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최씨 로열패밀리가 주도해 만든 회사가 ‘후니드’인 것이다. 최씨 가문 장손 직계인 최영근 등에게 후니드를 맡기고 SK그룹의 위탁급식과 인력 서비스를 맡아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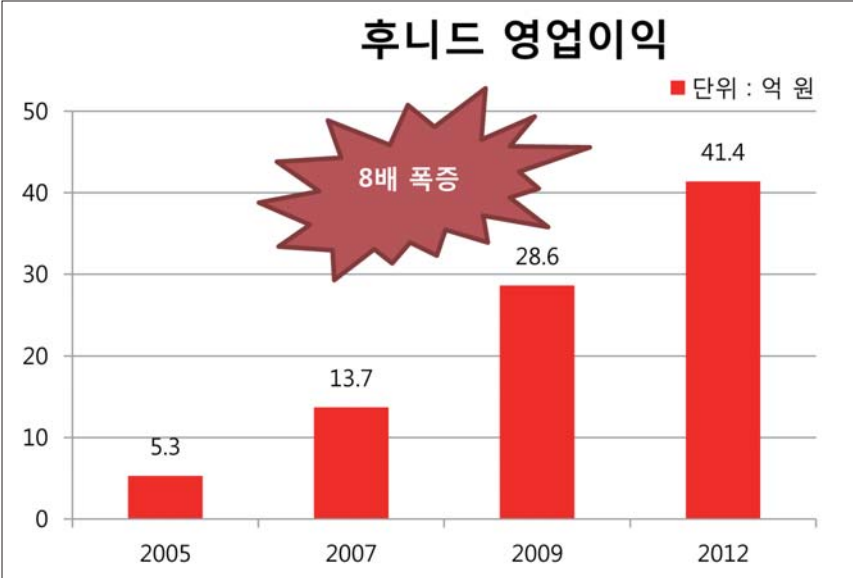
당시 경제전문지들은 ‘의리의 SK’라는 제목으로 조카들의 생계를 알뜰히 보살피는 재벌가의 미담으로 보도했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앗아 혈족들에게 특혜를 베풀, 한국 재벌들의 치부인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였을 뿐이었다.

형명협의 등으로 4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던 최태원 회장, 그리고 수 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슴기 살균제 유해성분 은폐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최창원 SK디스크 버리 회장 등 후니드 설립을 주도한 SK 최씨 가문 인사들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절친한 사이라는 건 SBS 임직원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SK 혈족들의 노골적인 일감 몰아주기 속에 최영근 등 금수저 SK 3세들의 후니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후니드 매출과 영업이익 (2005~2012)





SBS 일감 싹쓸이 해 마약구매 자금으로(?)

이렇게 시작부터 불의했기 때문이었을까. 17살부터 연간 수십억의 불로소득을 얻었던 최영근은 올해 4월 초 뉴스 화면을 뜨겁게 달구었다. 마약구매와 복용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3세, 그가 바로 ‘후니드’의 대주주 최영근이다. 최 씨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변종 마약인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피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최영근과 후니드 동업자였던 윤석민 회장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SBS 미디어그룹의 일감까지 싹쓸이해 벌어들인 자금 일부가 SK 재벌 3세의 마약 구매에 쓰인 셈이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또 하나의 후니드, 태영매니지먼트

태영건설에도 ‘후니드’와 유사한 회사가 있었다. 1996년 2월에 건물관리와 인력 파견, 조경공사를 주업으로 설립된 ‘태영매니지먼트’라는 용역회사다. 이 회사는 설립 후 곧바로 태영건설의 관계사로 편입된다.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신생회사였지만 출범과 함께 태영건설은 물론, 당시 태영건설의 자회사였던 SBS의 용역까지 하나 둘 쓸어 담기 시작한다.

윤석민 지분 99.99%... 시작부터 태영건설-SBS 일감 몰아 덩치 키워

신생회사가 지상파 방송사 하청 일감까지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주인이 창업주 윤세영 회장의 아들인 윤석민 당시 태영건설 기획담당이사로 99.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문을 연 1996년은 윤석민 회장이 아무런 방송 경영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사대우 기획실장으로 SBS에 발을 들여놓은 해이기도 하다.

IMF 직후인 1998년, 윤석민 회장은 기술, 미술 인력을 마구잡이로 쪼개 무리한 분사를 강행해 SBS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뒤로는 자기 개인회사인 태영매니지먼트에 SBS 용역 하청 일감을 몰아주며, 스스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열중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선진 경영 기법을 익히고 왔다는 대주주 태영건설 2세가 SBS에서 처음 한 일이 마구잡이 분사 강행으로 인한 SBS 공동체 파괴와 한국 재벌 2, 3세들의 전매특허인 일감 싹쓸이였던 것이다.

태영건설과 SBS 일감싹쓸이로 ‘태영매니지먼트’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2012년에는 매출 204억 원에 영업이익 5.5억 원, 순이익 5.3억 원의 알짜배기 회사가 된다. 그러나 204억 원의 매출 중, 태영과 SBS 등 계열매출이 65%에 달해 공정거래법 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후니드 + 태영 매니지먼트 = 법망 무력화 + 일감 싹쓸이 판 키우기

2013년 10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가들이 개인 기업을 만들어 재벌들의 하청 일감을 싹쓸이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2013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상장 30%(비상장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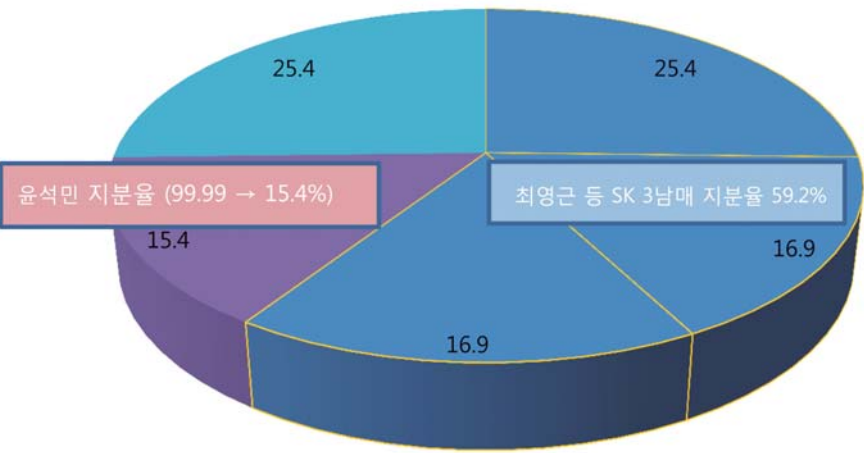
당시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 취지는 대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오너 개인의 공간 채우기를 중단시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SK그룹과의 거래 비중이 61%를 넘었던 ‘후니드’와 태영그룹과의 거래비중이 65%에 달했던 ‘태영매니지먼트’에게 ‘상생’이라는 이런 법 개정 취지는 코웃음거리에 불과했다.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는 입법예고 다음날인 10월 2일, 전격적인 합병추진을 선언한다.

당시 총수 일가 지분이 규제 기준을 넘는 곳은 300여개 기업.

그 가운데 규제 대상 기업끼리 합병해 총수 일가의 개인 지분율에 물을 타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 보장과 상생 경영이라는 공정거래법 개정취지 취지를 무력화 시켜버린 것은 윤석민 회장의 태영매니지먼트와 SK 최씨 3세들의 후니드가 유일하다.

태영매니지먼트 합병 후 후니드 지분율 변동



태영 매니지먼트를 합병한 후니드의 합병 산정 주가는 77만원. 신주 5,452주를 포함해 15.4%의 후니드 지분이 윤석민 회장 몫이 됐고, 태영 매니지먼트 설립자금 3억원, 주당 5천원의 가치는 118억원으로 40배가 폭등했다. 투자수익률은 4,000%, 주가상승률은 15,400%에 달한다. 이렇게 주가가 산정된 것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공정거래를 위한 법적 규제망을 무력화시켰으니 대놓고 일감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룹사의 든든한 일감 지원을 받고 있는 오너 소유 계열사를 외부 회사와 합병해 외부 주주들과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언뜻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후니드와 태영그룹의 관계를 고려하면 추후 상당한 내부거래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합병 당시 보도된 이 기사의 예측대로 합병 이후 후니드는 SBS 미디어 그룹 전체의 하청을 마구잡이로 독식하기 시작한다.

후니드를 해부한다③ 일감 싹쓸이 뒷면의 수상한 거래

폭발적인 성장과 사익 추구 뒤에 이어진 위장 매각 및 차명 분산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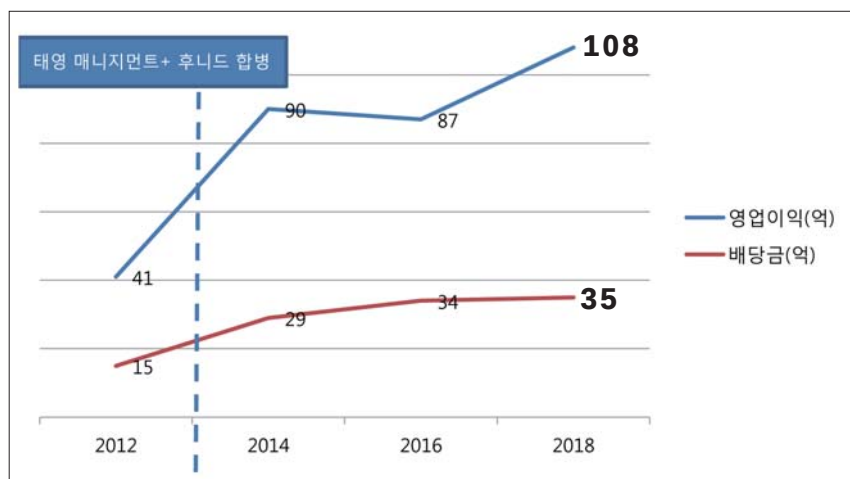
후니드+태영매니지먼트 = SBS 일감 싹쓸이 본격화

‘태영매니지먼트’를 인수합병 한 후 ‘후니드’는 사업 영역을 시설, 경비, 미화, 운전, 방송 제작으로 급속하게 확대했다. 태영건설의 여의도 사옥과 마포사옥 관리는 물론이고 SBS의 목동, 상암동, 등촌동, 일산탄현 4개 사업장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목동사옥 경비를 제외하고 시설, 경비, 미화, 운전 등 모든 용역업무를 ‘후니드’가 끌어갔다.

SBS플러스의 경우에는 아예 ‘후니드’에 미디어제작센터를 신설해 방송 기술, 중계, 촬영, 미술 등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파견 인력의 용역까지 후니드로 몰아주었다.

일감 싹쓸이 후 후니드의 폭발적 성장

태영건설과 SBS 미디어그룹 전체의 용역 일감을 싹쓸이한 이후 후니드의 매출과 배당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6년만에 매출은 3배, 영업이익은 2.5배, 배당금도 2배 이상 증가한다.



‘후니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 당시 SBS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계열사와의 부당한 로열티 계약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콘텐츠 경쟁력 저하가 심각해진 상황이었다. 이를 기회로 윤석민 회장은 SBS 중심의 책임 경영을 약속하며 2016년 SBS의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했지만, 뒤로는 자신이 대주주인 용역회사 후니드가 SBS 일감을 싹쓸이하도록 하는 부도덕한 사익 추구행위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SBS 이사회 의장이자, SBS 미디어그룹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의 상속자 윤석민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후니드’에 스스로 용역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후니드’의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윤 회장에게 묵살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후니드’라는 단어는 SBS에서 함부로 건드릴서는 안 되는 ‘성역’이 되었다.

윤석민 회장, 태영-SBS 일감 싹쓸이로 고배당 + 지분 가치 천문학적 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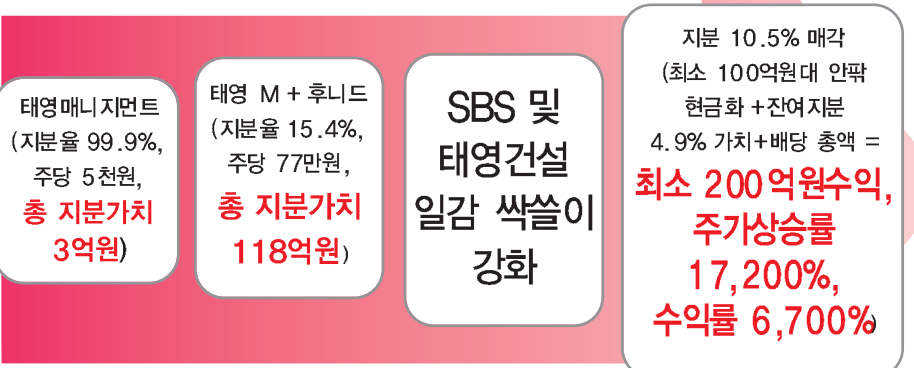
종자돈 3억으로 200억 이상 수익 추정...투자 수익률 6,700%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감 싹쓸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부터 작년 2018년까지 윤석민 회장이 ‘후니드’에서 받은 배당만 총 28억여 원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이전 태영매니지먼트 시절 배당까지 더하면 적어도 45억원 이상이 현금으로 윤석민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주당 5천원, 자본금 3억원을 태영매니지먼트에 투자했던 윤석민 회장은 후니드로 회사를 합치고, 이후 SBS 일감 싹쓸이 규모를 더 확대해 후니드의 매출과 이익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자신의 개인 지분 가치도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3억원이었던 윤석민 회장의 태영 매니지먼트 설립 투자금은 2018년 현재 200억원으로 불어났다. 6,700%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률이다.

윤석민 회장의 부당한 불로소득과 사익추구



지상파 방송 SBS 무대로 금수저 재벌 2,3세 범죄수법 따라하기

지난 해 윤석민 회장의 지분가치 등 투자수익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자. 2016년 마약사범 SK 3세 최영근의 후니드 지분 매각가인 주당 86만 3천원으로 계산하면 윤석민 회장의 지분가치는 133억원에 달한다. 태영매니지먼트 시절 주당 5천원 대비 17,200%에 달하는 믿을 수 없는 주가 상승이며, 배당과 지분가치 상승을 합친 수익은 적어도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원금 3억원 대비 투자 수익률 6,700%에 달하는 수치다.

자신이 대주주인 후니드에, 자신이 지배하는 태영건설과 SBS 미디어 그룹의 하청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이를 토대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사적으로 챙긴 윤석민 회장. 전형적인 재벌 2,3세들의 범죄 수법 따라하기가 지상파 방송 SBS와 그 주변의 SBS 미디어그룹 계열사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후니드를 둘러싼 이상한 거래... 위장 매각, 차명 분산 의혹

SK 3세와 윤석민 회장, 정체불명 회사에 후니드 지분 매각...
차명으로 위장한 지분 분산을 의심케 하는 수상한 정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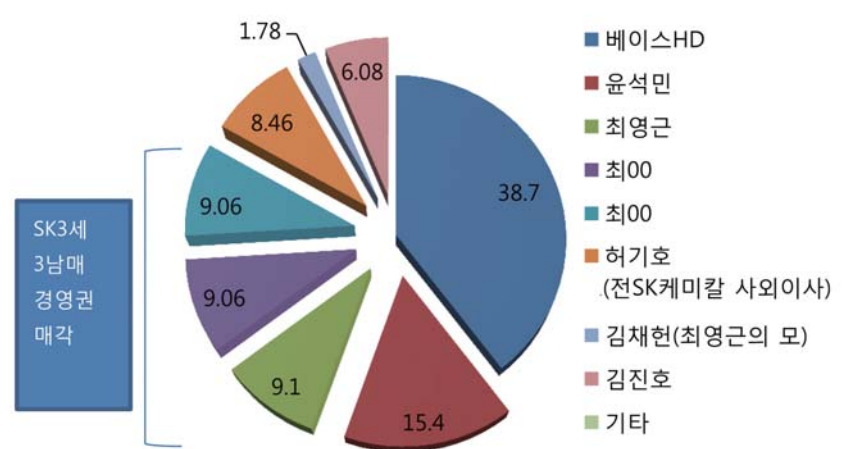
이렇듯 윤석민 회장에게 SBS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지상파 방송사가 아니라 그저 사익 창출을 위한 거대한 현금 창고였을 뿐이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후니드에 SBS와 미디어그룹 전체의 용역 하청을 끌어 담고, 부당지원이 명백한 조건으로 거래해 후니드의 매출과 수익을 끌어올리

고 이를 바탕으로 고액의 배당을 챙겼으며, 지분 가치까지 폭등시켜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골몰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 마디로 윤석민 회장에게 후니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2016년 후니드 최대주주 변경, 수상한 거래 의혹

그런데 지난 2016년, 윤 회장의 황금거위 <후니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베이스HD’ (구 베이스컨설팅)라는 생소한 이름의 회사가 윤석민 회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최영근, 최00, 최00 SK 3세 혈족의 지분 중 38.7%를 주당 86만 3천원 총 334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최대주주가 바뀐 것이다. ‘베이스HD’는 경영컨설팅과 공공관계 서비스업이 주업이라고 기업소개서에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명동 일대에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자로 기업경영 보다는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상장기업을 인수, 매각해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다.

후니드 최대주주 변경(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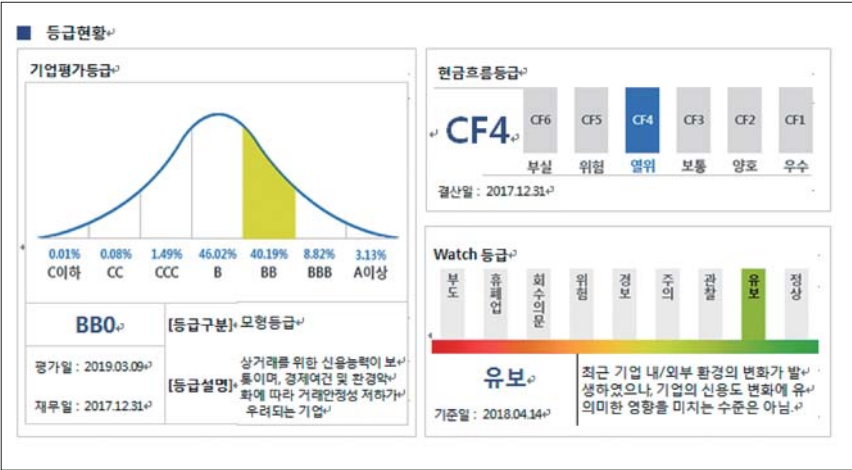
‘베이스HD’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윤석민 회장은 보유지분 15.4%를 그대로 유지해 ‘후니드’의 2대 주주가 되었다. SK 3세들의 지분매각 가격을 대입하면 자본금 3억 원의 ‘태영매니지먼트’로 시작된 윤석민 회장의 용역회사 지분가치는 13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배당금수익을 빼도 무려 4,400%가 넘는 투자수익률이다.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 기업합병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막으려는 규제를 무력화한 이후, 거꾸로 SBS 그룹 전체의 일감을 짊어지게 만들어진 엄청난 불로소득이 윤석민 회장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정체불명 기업 사냥꾼이 재벌 하청 독식 ‘후니드’ 대주주로... 위장매각 의혹 확산

그런데 베이스HD의 후니드주식 인수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니드’ 인수 당시 ‘베이스HD’는 당기 순이익이 38억 원에 불과한 회사로 SK와 태영의 전폭적인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는 ‘후니드’의 최대 주주가 되기에는 덩치가 턱없이 작다는 것이었다. 직원 2천 6백명이 넘는 대규모 용역전문 기업을 직원 6명짜리 회사가 인수한 것이다.

실제 베이스 HD에 대한 기업평가 자료를 보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열위’ 군에 포함돼 있다. 또 기업평가 등급은 거래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수준의 BBO 수준으로 SK 그룹과 태영건설, SBS의 용역 하청을 독점하고 있는 알짜기업 ‘후니드’를 인수할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다. 재벌 2,3세들의 황금알을 낳은 거위나 다름없는 알짜 기업 ‘후니드’를 인수한 자금의 출처를 포함해 인수능력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특히 SK그룹이나 태영그룹으로부터 일감이 끊기면 인수한 후니드 지분 가치가 폭락하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왜 3백 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해 후니드의 대주주가 됐는지도 석연치 않다.

베이스 HD 기업 분석 자료 (2019)



“후니드 인수 김 모 회장은 재벌 비자금 관리 전문”... 더 커지는 지분 은닉 의혹

또한 SK 최씨 남매나 윤석민 회장의 입장에서조차 주당 배당수익이 연간 3만~5만 원에 이르는 ‘후니드’ 지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런 알짜 자산을 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업자들에게 넘겼는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후니드’의 대주주 변경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무력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SK 혈족 3세와 윤석민 회장의 천문학적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비켜가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분산시켜놓은 일종의 위장 매각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명동 사채시장과 제2 금융권 등에서는 후니드 지분을 사들인 베이스HD의 김 모 회장이 90년대부터 여러 재벌들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인사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모 회장은 이전부터 S그룹, E그룹 등 대기업 비자금을 관리해 온 사람으로 98년도에는 비자금 문제로 모 대기업 회장을 대신해 감옥에도 갔다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지금도 S, H그룹 등 여러 재벌 대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해주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후니드 최대 주주 SK 3세 지분 인수 시점 베이스 HD 사무실 입구 모습〉 2015.4농업경제신문

2015년 4월 15일 자 농업경제신문에는 베이스HD 김 모 회장의 사무실과 관련해 이런 기사가 실렸다.

“(중략) “김모 회장의 사무실은 명동에 있다. 그런데 사무실에 가보면 전혀 사무실 같지가 않다. 현관문 앞에 A4 용지 몇장으로 회사이름 여러개를 붙여놓고 사무실로 쓰고 있다. 무려 7개의 회사 상호가 적혀있다. 그리고 책상도 직원도 없다. 흔히 말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의문 투성이의 후니드 지배구조..검찰 수사가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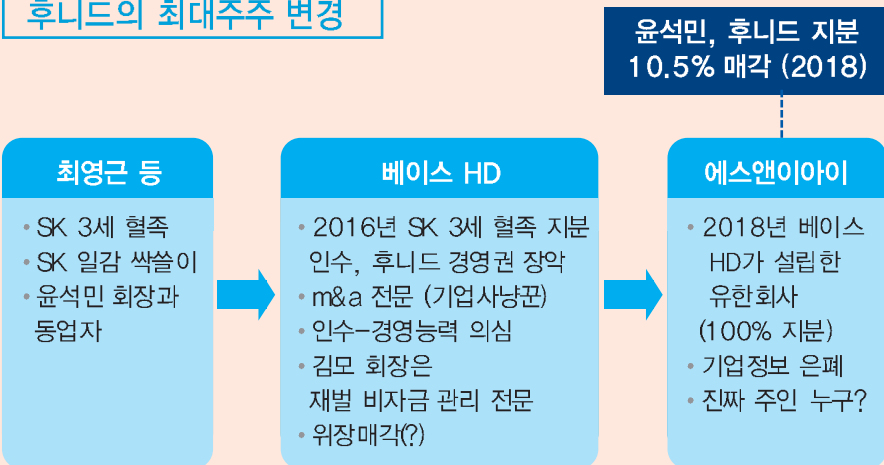
지분 매각인가? 또 다른 위장 거래인가?

기업정보 노출 안 되는 유한회사로 옮겨진 후니드 지분...

수상한 거래 의심 더 커져

이런 의문 투성이의 베이스 HD는 2018년에 들어서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여러 기업 지분 가운데 유일하게 ‘후니드’ 지분 전량을 기업 내부 정보가 거의 노출되지 않는 유한회사 ‘에스앤이아이’를 설립해 양도한다.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베이스 HD’에서 유한회사 ‘에스앤이아이’로 다시 변경된 것이다.

후니드의 최대주주 변경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의 합병 이후 자신이 2대 주주가 된 2016년 이후에도 SBS와 관계사들의 일감 싹쓸이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계속 무시하던 윤석민 회장은 후니드의 최대주주가 정체불명의 유한회사 에스앤이아이로 변경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8년 4월에 보유 지분 중 10.5%를 에스앤이아이에 매각했다. 이로써 정체를 알 수 없는 유한회사 ‘에스앤이아이’는 지분을 49.2%를 확보한 후니드의 명실상부한 최대 주주가 된다.

윤석민 회장의 일부 지분 매도 가격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SK 3세들이 보유지분을 매각한 가격으로 역산해 보면 적어도 90억원 이상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영매니지먼트 시절부터 꼬박꼬박 챙겨간 배당까지 합하면 3억원을 투자해 150억원 안팎을 현금화하고, 아직도 50억원대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현재 윤석민 회장은 태영매니지먼트 설립 때 들인 3억원 종잣돈으로 무려 67배, 6,700%의 투자수익을 실현한 것이다.

전문가들 “윤석민 지분 매각, 주식 ‘파킹’ = 위장 지분 분산 가능성 농후”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SK 3세 최영근씨 3남매와 윤석민 회장이 유한회사에 지분을 넘긴 것은 SBS 용역 싹쓸이 기업 후니드의 진짜주주와 기업 정보, 지분 변동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위장 거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여러 회계 전문가들은 2013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된 이후, 많은 재력가들과 재벌 2,3세들이 후니드 같은 용역회사 지분을 사모펀드나 사채업자들에게 차명으로 위장 분산시켜 규제를 빠져 나가고, 실제 일감 몰아주기는 더 강화해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SK 3세들과 윤석민 회장이 이름조차 생소한 의혹투성이 기업 베이스HD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후니드 지분을 넘기고 지분을 사들인 베이스HD는 기업의 정체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유한회사를 만들어 다시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야말로 위장 거래와 차명 지분 은닉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SK 3세 혈족과 윤석민 태영 회장의 지분을 인수한 자들이 사채시장과 금융권에서 재벌 대기업들의 비자금 은닉처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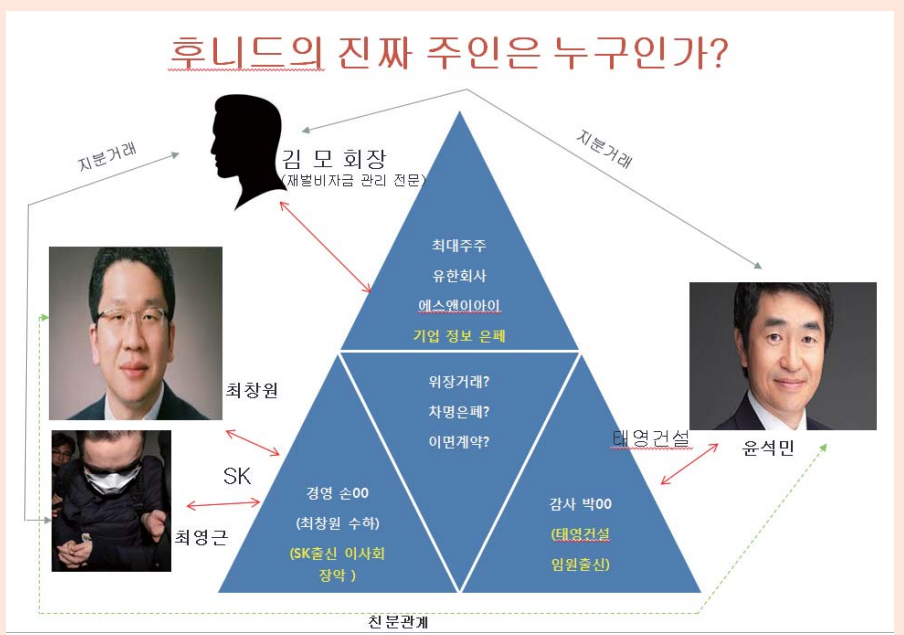
‘후니드’ 지분은 정체 모를 유한회사가, 경영은 SK와 태영건설이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방증도 있다. SK 3세들과 윤석민 회장의 지분이

정체불명의 유한회사로 넘어간 이후에도 후니드의 경영은 윤석민 회장과 절친한 관계인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회장 수하로 SK건설과 SK 케미컬 임원 출신인 손 모씨가 계속 맡고 있다. 다른 이사들도 SK 계열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고 일부 태영건설 계열사 출신 인사도 포함돼 있다. 후니드의 자금과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에도 오랫동안 윤석민 회장 아래서 태영 매니지먼트 감사로 일했던 태영건설 상무 출신 박 모씨가 2013년 합병 이후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다.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가 이전 회사 경영진과 감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짜배기 기업 후니드는 겉으로 드러난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를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니드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SK 비자금 창구에 윤석민 지분 은닉(?)



외관상 지분을 매각한 것처럼 위장해 사회적, 법적 감시를 피하고, 후니드의 실질적 경영은 여전히 SK와 태영건설이 맡고 있는 불법 위장 지분 거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SK 연관 사업에 손을 대고 있는 베이스HD가 SK의 비자금 관리 창구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윤석민 회장이 자신의 황금거위 후니드 지분을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최태원, 최창원 회장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SK의 비자금 관리 창구에 숨겨놓은 것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다. 여러 재벌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사채시장과 금융권에 널리 알려진 베이스HD 김 모 회장의 정체도 이런 의혹에 무게를 더 할 수밖에 없다.

실제 매각이라 해도 이면 계약 가능성

물론 윤석민 회장이 실제로 정체 불명의 기업 사냥꾼들에게 지분을 매각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석연치 않은 이면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후니드는 SK와 SBS, 태영건설로부터 일감이 끊기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K나 태영건설, SBS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니 관계를 맺는 게 더 어색한 기업 사냥꾼이 왜 자신들보다 덩치가 훨씬 큰 후니드를 아무런 안전보장 없이 덜컥 인수했겠느냐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수상한 거래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검찰 수사로 진실 밝혀야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윤석민 회장 등 관련자들과 수상한 회사 '베이스HD'의 거래가 밝혀지면 이 수상한 거래의 진실도 자연스레 밝혀질 것이다.

또한 그렇게 진실이 드러나면 과연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함께 확고한 도덕성을 갖춰야 할 지상과 방송의 지배주주로서 윤석민 회장의 자격도 명백히 검증이 될 것이다.